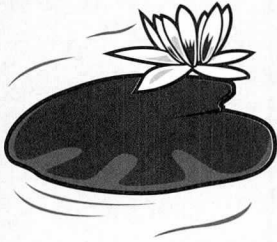


## 중국고사(中國故事)

# “해어(解語)의 꽃”



이 기 춘

KCID 회원 / 한국농공학회 고문

중국의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당(唐)나라 수도 장안(長安)은 지금 꽃향기 그윽했던 봄철이 막 지나가고 훈풍이 감도는 여름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날 “태액지(太液地)의 연꽃이 만개 하였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고 대당의 군주 현종(玄宗)은 비(妃)와 궁녀를 거느리고 그 연못가에 나갔다.

연못을 덮고 있는 둥근 연잎의 상쾌한 푸르름, 그리고 아침 이슬이 내린 담홍색이나 백색의 연꽃, 마치 환몽 속에 있는 듯 아름다웠다. 이때 황제는 옆에 있는 비(妃)를 가리키면서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 하였다.

“어떤가 저 연꽃의 아름다움도 말을 알아듣는 이 꽃(해어의 꽃)에는 미치지 못하겠지.” 이 말이 떨어지자 궁녀들은 “그럼은요.” “그렇습니다.” 하고 황공하다는 듯 칭찬을 하였고, 아름다운 비는 화사한 꽃 모양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미소 지었던 아름다운 비가 바로 저 유명한 양귀비(楊貴妃)인 것이다.

앞서 현종은 여산(驪山)의 온천궁에 갔을 때 자기의 아들인 수왕(壽王)의 비였던 양귀비에게

반해버렸다.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양귀비를 수왕으로부터 빼앗아 자기의 후궁을 삼았다.

소원을 이루게 된 현종은 그때부터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졌고 양귀비에게만 온 정신을 쏟아 부었다. 그는 너무나 기뻐다. 그래서 어떤가 내 비는 미인이지 하고 말한 것이 해어(解語)의 꽃이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이다.

그 후 현종은 양귀비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진과(珍果)였던 예지(藥枝)를 수만리 멀고먼 영남에서 가져오게 하였으니 맛이 변하기 쉬운 예지를 싱싱한 채 운반해 오기 위해 수많은 파발마를 대령시켜 놓고 파발마를 타고 달리는 사자가 말을 바꾸어 타가면서 밤을 새워 달렸다. 그 머나먼 길을 달려오는 동안 말은 지쳐 쓰러지고 웅덩이에 빠져 죽은 말도 수없이 있었다고 한다.

마침내 안록산(安祿山)의 난이 일어나 양귀비는 분노한 병사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다.

현종의 치세의 전반 20여년간은 “개원의 치”라는 칭송을 들을 만치 훌륭한 정치를 하였으나 양귀비를 얻고나서 부터 일천하여 아주 변변치 못한 정치를 하게 되었고, 비참한 말로를 마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종과 양귀비가

만들어낸 많은 이야기와 말 가운데 이 「해어의 꽃」도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말을 아는 꽃”, “말을 하는 꽃”이라고도 풀이한다. 즉 “미인이 라는 뜻”이다.

이 꽃은 계절에 관계없이 사시사철 존재한다. 어느 때 눈앞에 나타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지 알 수 없는 것이다.

## 물과 속담

- ➔ 물은 트는 대로 흐른다.
    -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따라 교화되고 일은 사람이 주선하는 대로 된다는 뜻
  - ➔ 시루에 물 퍼 붓기
    - 아무리 비용을 들이고 애를 써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 덕망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잘난 체하거나 아는 체 떠벌리지 않는다는 말
  - ➔ 백일 장마에도 하루만 더 왔으면 한다.
    -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 본위로 이야기 하는 것을 말한다.
  - ➔ 물은 건너보아야 알고 사람은 지내보아야 한다.
    - 사람은 겉으로만 보아서 그 속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실제로 겪어봐야 바로 안다는 말
  - ➔ 침 뱉은 우물을 다시 먹는다.
    - 다시는 안 볼 듯이 야박하게 행동하더니 어찌다가 자신의 처지가 아쉬우니까 다시 찾아온다는 뜻
  - ➔ 흘러가는 물도 떠 주면 공이 된다.
    - 쉬운 일이라도 도와주면 은혜가 된다는 뜻
  - ➔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 자기 덕이 커야 남이 많이 따르다는 말
- 〈출처 : 물포럼코리아(www.wfk.or.kr)〉
- ➔ 벼농사는 물 농사다.
    - 벼농사를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물관리에 달렸다는 뜻.
  - ➔ 빗물에 거품이 일면 풍년이 든다.
    - 수면에 거품이 일 정도로 빗방울이 떨어지면 풍년이 든다는 뜻.
  - ➔ 찔레꽃칠 비는 풍년비다.
    - 찔레꽃이 만개하는 5월 중순에 비가 오면 모내기를 순조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풍년이 든다는 뜻.
  - ➔ 입춘에 보리 뿌리가 셋만 되면 풍년 든다.
    - 입춘인 2월 3일 경에 보리 뿌리가 세 개만 자라고 있으면 보리의 성장이 좋아 다수확을 할 수 있다는 뜻.
  - ➔ 물방아 물도 서면 언다.
    - 방아가 정지하고 있으면 그 물도 얼듯이 사람도 운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뜻
  - ➔ 물 본 기러기 꽃 본 나비
    - 바라던 바를 이루어 득의양양함